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Symphony No. 2
in C minor

말러 - 교향곡 제2번 다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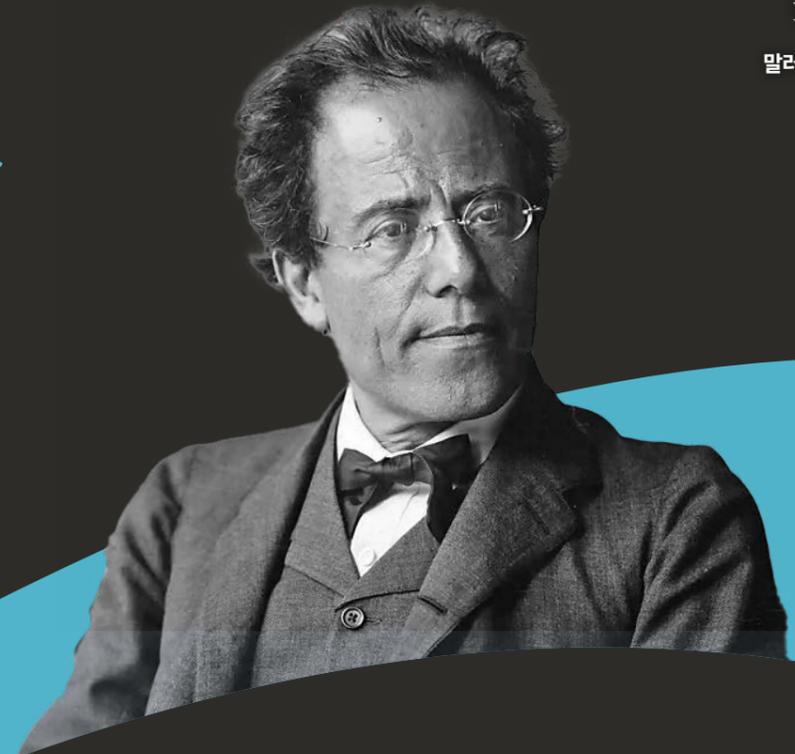
“Resurrection”
Gustav Mahler

지휘 - 함신익

소프라노 - 이윤정

메조소프라노 - 김선정

합창 -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말러의
“부활”

2026

02. 07.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예술의전당 NOLticket

후원 하나은행

NOROO

POONGSAN

TSE

FST

SEBONG

화광교역(주)

S&AH

서대문구

한국관광공사

코스모스약기

SYMPOHNY SONG SHINK MAHM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풍산

말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GFS
골프존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면사랑
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다진
KNW
박선주

모차르트 Circle

코스모엠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하이든 Circle

고윤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응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Resurrection”

말러의 “부활”



Gustav Mahler (1860-1911)

Symphony No. 2 in C minor, “Resurrection”

교향곡 제2번 다단조, “부활”

- I. Allegro maestoso 빠르고 장엄하게
- II. Andante moderato 산책하듯 보통 빠르기로
- III. In ruhig fließender Bewegung 조용하게 흐르듯 움직이며
- IV. Urlicht. Sehr feierlich, aber schlicht 근원의 빛. 장엄하되 과장되지 않게
- V. Im Tempo des Scherzos. Wild herausfahrend 스케르초의 빠르기로. 격렬하게

소프라노 이윤정 /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 국립합창단 / 인천시립합창단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잉글리시 호른	박상원	오유정			
바이올린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박진영	오하은	클라리넷	조종현	김영호	노은솔	이나원	정태욱
	이지은	강민선	강운서	김도혜	김민주	베이스 클라리넷	김영호				
	김민지	김사무엘	김서연	김재윤	김하영	바순	김윤지	고경호	민서영		
	박서현	박지우	서예린	안휘윤	양나영	콘트라 바순	오승은				
	이수민	이에서	이예원	장민주	정예린	호른	조종현	김효정	김보람	이혜성	주혜준
	정예은	한예솔	황준정				한윤호	허건행			
비올라	Guan Qi	안예림	김도현	김용수	김효경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고형민	김규림	김동원
	박영주	선유빈	송수민	유민석	윤채원		이창민	지호준	황다운		
	장윤정	한지윤	한혜원			트럼본	김주형 김거봉 임모니카빈				
첼로	임종현	권서진	권혜림	김륜지	김민지	베이스 트럼본	김재원				
	김윤하	김하민	남예은	박주영	이한호	튜바	김지은				
	정혜솔	최 영				오르간	박성현				
더블베이스	고부현	이동혁	김태현	김혜린	박재선	하프	김경화				
	박준건	이현지	전재덕	함현승		팀파니	이종일	오정민			
플루트	김성찬	김보경	김지원	유민아		타악기	황영광	손유진	신주하		
피콜로	김지원	유민아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구현정	김지원	유소정	이수민
오보에	Simon Lee	김소정	박상원	오유정							

*약장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 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지휘자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예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왕’ 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왕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6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소프라노 이윤정

Q 심포니 송의 첫인상
처음 연습에서 심포니 송은 섬세하면서도 단단한 에너지를 지닌 오케스트라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각 파트의 역할 인식이 분명하고, 리허설을 거듭할수록 음악에 대한 집중력과 응집력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Q 이번 무대(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에 대한 소감
말러의 ‘부활’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성악은 이 음악 속에서 철학적·영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무게를 깊이 느끼며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무대의 매력
방대한 사운드 속에서 성악은 하나의 악기이자

인간의 목소리만이 지닌 온기를 전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장감과 책임감이 오히려 이 무대의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Q 함신익 지휘자와의 음악적 호흡
지휘자님은 성악가의 호흡과 언어를 깊이 이해하시며, 음악의 흐름 속에서 노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덕분에 연주자로서 음악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Q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 여러분께서 말러의 음악이 전하는 깊은 울림을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빛이 남아 공연장을 나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PROFILE

- 독일 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 역임
-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 및 다수 국제 콩쿠르 입상
- 예술의전당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등에서 주역가수로 활약
- 현 서울시립대학교 겸임 교수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Q 심포니 송의 첫인상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오케스트라라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Q 이번 무대(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에 대한 소감
애정하는 곡 중의 하나이며, 26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활’에 임하겠습니다.

Q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무대의 매력
최고의 합창단과 최고의 지휘자님이 이끄시는 심포니 송의 무대가 기대됩니다.

Q 함신익 지휘자와의 음악적 호흡
연말 되면 감사하고도 항상 지휘자님께서 불러 주셔서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함께 했는데, 그 어느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고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깊은 감동이고, 음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우리 젊은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부활’ 하셔서 멋진 한 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PROFILE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졸업
- 함부르크, 뤼벡 등에서 콘서트 및 오페라 공연
- 오페라 ‘카르멘’, ‘보체코’, ‘신데렐라’ 등 국내외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
-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 및 시립합창단과 협연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된 이래,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합창단이다. 200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한 이후 매년 5회의 정기공연을 비롯해 60여 회에 이르는 기획공연, 지역 및 해외공연, 외부 출연과 공공 행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합창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포함해 한국 가곡, 민요, 영화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합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 고유의 창법과 해석법 정립, 합창 작품의 개발·보급에 힘쓰는 한편 대규모 칸타타 위촉과

창작곡 공모 등 창작곡 발굴 프로젝트로 한국 합창음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0월과 2025년 7월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오사카 더 심포니홀, 교토 콘서트홀,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으며, 2026년 11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마스터 코랄(LAMC) 초청으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합동 공연을 앞두고 있다. 2024년 1월, 민인기 지휘자가 제12대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어 음악적 사명과 예술적 비전을 조화롭게 구현해 나가고 있다. 53년간 대한민국 합창음악을 선도해 온 국립합창단은 앞으로의 50년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합창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 이후, 1995년 윤학원 전 예술 감독과 함께 재창단하며 세계합창연맹(IFCM)과 미국지휘자협회(ACDA) 컨벤션 등 세계 주요 합창 축제에 초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인천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였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은 시민들에게 감동있고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제공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 <인

천합창대축제> 등을 통하여 지역의 합창저변확대와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4년 1월, 윤의중 지휘자가 제8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며 더욱 세계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은 2025년 1월, 인도네시아 반둥 합창 심포지움에 초청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무대에 합창음악과 인천시립합창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Gustav Mahler

Symphony No. 2 in C minor “Resurrection”

말러 교향곡 제2번 다단조 “부활”



가야 할 방향을 직감했다고 회상한다. 그는 이 시에 자신의 가사를 덧붙여,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형과 재탄생의 과정임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교향곡 제2번의 거대한 피날레가 완성된다. 1895년 베를린에서 말러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 이 작품은 평단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도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이 교향곡은 말러 음악 세계의 출발점이자, 그의 철학적 교향곡들을 예고하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Gustav Mahler's Symphony No. 2, "Resurrection," is far more than a purely orchestral work; it is a vast musical meditation on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In this symphony, Mahler confronts fundamental themes—life and death, suffering and redemption—expanding the symphonic genre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to a philosophical and spiritual realm. In 1888, after completing his Symphony No. 1, Mahler was rapidly gaining recognition as both a composer and a conductor. His successful completion of Carl Maria von Weber's unfinished opera Die drei Pintos in Leipzig helped establish his reputation as a promising young musician. Yet despite this outward success, Mahler's inner world was increasingly haunted by anxiety and images of death. He later recounted a dream in which he saw himself lying dead upon a bed surrounded by flowers. This powerful vision soon took musical form as the orchestral work Totenfeier (Funeral Rite), which would later become the first movement of Symphony No. 2.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은 단순한 관현악 작품을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거대한 음악적 사유라 할 수 있다. 이 교향곡에서 말러는 삶과 죽음, 고통과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주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19세기 말 교향곡 장르를 철학적·정신적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1888년, 말러는 교향곡 제1번을 완성한 뒤 작곡가이자 지휘자로서 빠르게 명성을 얻고 있었다. 특히 베버의 미완성 오페라 “세 사람의 핀토”를 완성해 라이프치히에서 성공을 거두며, 젊은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외적 성공과는 달리, 말러의 내면은 불안과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꽃으로 둘러싸인 침대 위에 죽은 채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고 전해지는데, 이 강렬한 체험은 곧 관현악곡 ‘장례식(Totenfeier)’으로 형상화되었다. 이 음악이 바로 훗날 교향곡 제2번의 제1악장이 된다.

작품의 구상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1889년을 전후해 말러는 부모님과 여동생을 잇달아 잃으며 깊은 상실을 겪었고, 이 시기는 그의 삶과 음악에 모두 큰 흔적을 남겼다.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창작의 흐름을 되찾은 것은 1893년, 오스트리아 아테르제 호숫가의 슈타인바흐로 거처를 옮기면서부터였다. 말러는 숲과 산을 거닐며 악상을 떠올리는 생활을 했고, 이 시기에 교향곡 제2번의 2·3악장과 함께 가곡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의 여러 작품을 완성한다. 알토 독창이 등장하는 4악장 ‘원광(Urlicht)’ 역시 이 가곡집에서 가져온 음악이다. 그러나 장례식으로 시작된 이 교향곡을 어떤 결말로 마무리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였다. 말러는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그리고자 했고, 점차 합창을 포함한 장대한 피날레를 구상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과의 비교를 의식하며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 시기, 그의 음악을 접한 지휘자 한스 폰 뷔로가 남긴 냉혹한 평가는 말러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1894년, 뷔로의 장례식에서 찾아왔다. 함부르크 미하엘리스 교회에서 울려 퍼진 합창 클롭슈톡의 시 ‘부활(Die Auferstehung)’을 듣는 순간, 말러는 자신의 교향곡이 나아

The composition of the symphony did not proceed without interruption. Around 1889, Mahler suffered profound personal losses with the deaths of his parents and his younger sister, experiences that left deep marks on both his life and his music. After a prolonged period of silence, his creative momentum returned in 1893, when he retreated to Steinbach am Attersee in Austria. Living close to nature, Mahler spent long hours walking through forests and mountains, and during this period he composed the second and third movements of the symphony, along with several songs from Des Knaben Wunderhorn (The Youth's Magic Horn). The fourth movement, "Urlicht" (Primeval Light), sung by an alto soloist, is also drawn directly from this song collection.

Yet the question of how to conclude a symphony that began with a funeral remained unresolved. Mahler sought a vision that could transcend death itself, and gradually he began to conceive a monumental finale involving chorus and soloists. At the same

PROGRAM
PROGRAM NOTE

time, he hesitated, acutely aware of the inevitable comparison with Beethoven’s Ninth Symphony. The severe criticism of his music by the influential conductor Hans von Bülow during this period only deepened his uncertainty.

The decisive moment came in 1894 at Bülow’s funeral. As Mahler listened to a choral setting of Friedrich Klopstock’s poem Die Auferstehung(Resurrection) resounding through St. Michael’s Church in Hamburg, he later recalled that he suddenly understood the direction his symphony must take. He adopted Klopstock’s text, adding verses of his own, in order to express the idea that death is not an end, but a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rebirth. From this revelation emerged the vast choral finale of the symphony.

Premiered in Berlin in 1895 under Mahler’s own direction, the work received mixed critical responses but left a profound impression on audiences. In time, Symphony No. 2 came to be recognized as the true point of departure for Mahler’s mature musical universe—a monumental work that heralds the philosophical symphonies that would define his legacy.

1악장 | **Allegro maestoso**
빠르고 장엄하게

말러 교향곡 제2번의 첫 악장은 ‘장례식(Totenfeier)’이라는 부제를 지닌다. 폴란드 시인 아담 미츠키에비츠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처음에는 독립된 교향시로 구상되었으나, 이후 교향곡의 서두로 자리 잡았다. 말러는 이 악장을 두고 “제1교향곡의 영웅을 무덤에 묻고, 그의 생애를 맑은 거울에 비추어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단조의 불안한 트레몰로로 시작되는 도입부는 강렬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저음 현악기가 제시하는 제1주제는 장송 행진을 연상시킨다. 이어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서정적인 제2주제가 등장해 잠시 위안을 주는 듯 하지만, 음악은 곧 다시 격렬한 절망으로 되돌아간다. 전개부에서는 전원적인 성격의 새로운 선율이 나타나고, 이어 ‘진노의 날(Dies Irae)’을 떠올리게 하는 선율과 ‘십자가 동기’, 그리고 훗날 5악장에서 완전한 형태로 등장할 ‘부활 동기’가 암시적으로 제시된다.

재현부는 제시부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제2주제가 전원적 선율과 결합되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악장은 장대하고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로 끝맺으며, 말러는 이를 “위대한 정신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장례의 장면”이라 표현했다. 이 악장 뒤에 말러가 악보에 남긴 ‘최소 5분의 휴식’ 지시는, 청중이 이 격렬한 음악적 경험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The first movement of Mahler’s Symphony No. 2 bears the subtitle Totenfeier(Funeral Rite). Inspired by a poem by the Polish poet Adam Mickiewicz, it was originally conceived as an independent symphonic poem before becoming the opening movement of the symphony. Mahler himself described this movement as “burying the hero of the First Symphony and

reflecting on his life as if in a clear mirror.”

The movement opens with an unsettling tremolo in C minor, creating an atmosphere of intense tension. The first theme, introduced by the low strings, evokes a solemn funeral march. This is followed by a lyrical second theme in the violins, offering a brief sense of consolation before the music returns to a state of violent despair. In the development section, a new pastoral idea emerges, followed by motifs reminiscent of the Dies Irae, the so-called “cross motif,” and an early foreshadowing of the “resurrection motif,” which will later appear in its full form in the final movement.

The recapitulation largely follows the structure of the exposition, though the second theme returns transformed through its combination with the pastoral material from the development. The movement concludes with a vast and tragic climax, which Mahler described as portraying “the suffering and death of a great spirit, and the scene of his burial.” After this movement, Mahler instructs in the score that there should be “at least a five-minute pause,” allowing the audience time to absorb the overwhelming musical experience.

2악장 | **Andante moderato**
산책하듯 보통 빠르기로

2악장은 말러가 “죽은 영웅의 생전, 가장 평온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회상”이라 설명한 악장이다. 이 음악은 말러가 1888년에 이미 스케치해 두었던 선율을 바탕으로 한다.

내림 가장조, 3/8박자의 이 악장은 오스트리아 민속무곡인 렌틀러 형식으로 쓰였으며, 두 개의 트리오를 포함한 구조를 지닌다. 악보에는 ‘Sehr gemächlich. Nie eilen(아주 느긋하게, 절대 서두르지 말 것)’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목가적이고 소박한 선율은 1악장의 비극적 세계와 대조를 이루며, 삶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담담히 떠올리게 한다. 이 악장은 이후 이어질 혼란과 구원, 그리고 부활의 여정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안한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The second movement was described by Mahler as a recollection of “the happiest and most peaceful moments of the hero’s life.” Its musical material is based on melodies Mahler had sketched as early as 1888. Written in A-flat major and 3/8 time, the movement takes the form of a Ländler, an Austrian folk dance, and features a structure with two contrasting trio sections. Mahler marks the score Sehr gemächlich. Nie eilen(Very leisurely. Never hurry). Pastoral and unpretentious in character, the movement stands in gentle contrast to the tragedy of the first movement, evoking fond memories of life’s simple beauty. Within the broader journey toward confusion, redemption, and resurrection, this movement serves as a moment of calm repose—a place to pause and reflect.

3악장 | **In ruhig fließender Bewegung**
조용하게 흐르듯 움직이며

3악장은 스케르초로, 말러의 가곡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에 수록된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말러가 존경했던 작곡가 한스 로트의 교향곡 제1번 3악장을 연상시키는 선율도 엿보인다. 말러는 이 악장을 “삶에 대한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로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머러스하게’ 연주하라는 지시가 있지만, 실제 음악은 냉소적이고 불안하며 때로는 기괴하게 들린다. 가사의 내용처럼, 아무리 설교를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계는 인간 사회의 위선과 공허함을 상징한다. 반복되는 선율 속에서 청중은 죽음 이후 영혼이 겪는 혼란과 방향을 마주하게 되며, 이는 곧 다음 악장에서 등장할 구원의 빛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The third movement is a scherzo based on the song Des Antonius von Padua Fischpredigt(St. Anthony of Padua’s Sermon to the Fishes) from Mahler’s song collection Des Knaben Wunderhorn(The Youth’s Magic Horn). Listeners may also discern echoes of the third movement of Hans Rott’s Symphony No. 1, a composer whom Mahler greatly admired. Mahler described this movement as expressing a state in which “all faith in life has been lost, and everything appears meaningless.” Although the score calls for a ‘humorous’ character, the music itself is often ironic, cynical, and at times grotesque. As in the song’s narrative—where St. Anthony’s sermon leaves the fishes unchanged—the movement symbolizes the hypocrisy and emptiness of human society. Through its endlessly circling motifs, the music conveys the soul’s confusion and wandering after death, heightening the longing for salvation that will emerge in the following movement.

4악장 | **Urlicht. Sehr feierlich, aber schlicht**
원광(근원의 빛). 장엄하되 과장되지 않게

4악장은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 ‘근원의 빛(Urlicht)’을 그대로 사용한 악장으로, 알토 독창으로 연주된다. 내림 라장조의 단순한 화성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넘어 신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노래된다. 이 악장은 교향곡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3악장의 혼란과 회의에서 벗어나 믿음과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길이는 짧지만, 거대한 5악장을 향한 정신적·음악적 서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죽음 너머의 세계를 향한 조용한 기도를 담고 있다.

The fourth movement is a direct setting of the song Urlicht(Primeval Light) from Des Knaben Wunderhornand is

sung by an alto soloist. In A-flat major, with simple harmonies and a deeply reverent atmosphere, the movement gives voice to a human soul yearning to transcend suffering and draw closer to God.

This movement marks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ymphony, offering faith and hope after the doubt and turmoil of the third movement. Though brief, it serves as both a spiritual and musical prelude to the monumental finale, embodying a quiet prayer directed toward the world beyond death.

5악장 | **Im Tempo des Scherzos. Wild herausfahrend**
스케르초의 빠르기로. 격렬하게

약 30분에 이르는 5악장은 이 교향곡의 정점으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혼성합창, 알토와 소프라노 독창이 모두 참여한다. 악장은 폭발적인 오케스트라의 서주로 시작되며, 종말과 심판을 연상시키는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긴 기악 전개 후, 멀리서 들려오는 합창이 클림슈톡의 시 ‘부활’의 첫 구절을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후 말러가 직접 덧붙인 가사가 이어지며, 음악은 점차 확장되어 거대한 환희의 절정으로 나아간다. 무대 뒤 금관악기, 오르간, 종소리까지 동원된 마지막 부분은 천상의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메시지를 장엄하게 선포한다.

말러는 이 악장을 통해 “심판도, 벌도 없는 세계, 전능한 사랑이 모든 존재를 꿰뚫는 상태”를 그리고자 했다. 교향곡 제2번 ‘부활’은 개인의 삶을 넘어, 인류 전체의 죽음과 구원이라는 보편적 질문에 대한 말러의 음악적 응답이자 그의 최초의 철학적 대서사시라 할 수 있다.

Lasting nearly thirty minutes, the fifth movement forms the culmination of the symphony and calls for massive orchestral forces, mixed chorus, and alto and soprano soloists. It opens with an explosive orchestral outburst, evoking a dramatic vision of apocalypse, judgment, and cosmic upheaval.

After an extended instrumental introduction, a distant chorus enters softly with the opening lines of Friedrich Klopstock’s poem Auferstehung(Resurrection). Mahler then adds his own verses, and the music gradually expands toward an overwhelming climax. The final section employs offstage brass, organ, and bells, creating the effect of celestial trumpets proclaiming resurrection.

In this ultimate apotheosis, Mahler affirms a vision beyond suffering and death—a triumphant proclamation of eternal life.

Through this final movement, Mahler sought to depict a world without judgment or punishment, one illuminated by all-encompassing love. Symphony No. 2, “Resurrection,” transcends the personal to address humanity’s universal questions of death, redemption, and renewal, standing as Mahler’s first great philosophical symphonic epic.

4악장 가사

O Röschen rot!
Der Mensch liegt in größter Not!
Der Mensch liegt in größter Pein!
Je lieber möcht' ich im Himmel sein!
Da kam ich auf einen breiten Weg;
Da kam ein Engelein und wollt' mich abweisen.
Ach nein!
Ich ließ mich nicht abweisen;
Ich bin von Gott und will wieder zu Gott!
Der liebe Gott wird mir ein Lichtchen geben,
Wird leuchten mir bis in das ewig selig Leben!

오 붉은 장미여!
인간은 큰 고통에 처해 있네!
인간은 깊은 고뇌 속에 있네!
차라리 천국에 있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는 넓은 길 위에 섰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나를 막으려 하였다
아아니야!
나는 그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왔느니,
하느님께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내게 작은 빛 하나 주시리니,
그 빛은 나를 영원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5악장 가사

Aufersteh'n, ja aufersteh'n wirst du,
Mein Staub, nach kurzer Ruh!
Unsterblich Leben
Wird der dich rief dir geben.
Wieder aufzublüh'n wirst du gesät!
Der Herr der Ernte geht
Und sammelt Garben
Uns ein, die starben!
O glaube, mein Herz, o glaube:
Es geht dir nichts verloren!
Dein ist, was du gesehnt!
Dein, was du geliebt, was du gestritten!

O glaube:
Du wardst nicht umsonst geboren!
Hast nicht umsonst gelebt, gelitten!
Was entstanden ist, das muß vergehen!
Was vergangen, auferstehen!
Hör' auf zu beben!
Bereite dich zu leben!

O Schmerz! Du Alldurchdringer!
Dir bin ich entrungen!
O Tod! Du Allbezwinger!
Nun bist du bezwungen!
Mit Flügeln, die ich mir errungen,
In heißen Liebesstreben
Werd' ich entschweben
Zum Licht, zu dem kein Aug' gedungen!
Mit Flügeln, die ich mir errungen,
werde ich entschweben!
Sterben werd' ich, um zu leben!

Aufersteh'n, ja aufersteh'n wirst du,
Mein Herz, in einem Nu!
Was du geschlagen,
Zu Gott wird es dich tragen!

부활하라, 짧은 안식 후에
나의 죽은 육신은 부활하라!
그대를 부른 이는
그대를 불멸의 삶으로 인도하라
그대는 새롭게 피어오른다
추수의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거두시리라
죽은 우리를!
오 믿음을 가지라, 내 영혼이여
그대가 잃은 것, 그것이 전부 아니다
그대가 소망하는 것이 모두 그대 것이다!
네가 사랑한 것, 싸워온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오 믿음을 가지라,
그대의 탄생은 헛되지 않다
그대의 존재, 고통 모두 헛되지 않음을 믿으라!

창조된 것은 모두 사라지니,
사라진 것은 다시 부활한다!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부활할 준비를 갖추라!

오, 모든 사물에 스며있는 고통!
모든 것을 멸하는 죽음
이제 그 명령에서 벗어나
그것마저 내 손아귀에 넣었다!
쟁취한 날개를 달고
타는 듯한 사랑의 열망 속에서
어느 누구의 시선도 미칠 수 없는 빛을 향해
치솟아 오르리!
내가 쟁취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리!
나는 살기 위해 죽으리라!

부활하라,
너는 일순간 다시 부활하라!
그리고 그대가 받은 고통,
그것이 너를 하느님께 인도하라!

합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I

Rimsky
Korsakov
“Scheherazade”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2026. 03. 12. Thu
19:30

LOTTE
CONCERT HALL
롯데콘서트홀

티켓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 |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 예매 LOTTE CONCERT HALL | YES24 | NOL ticket
후원 아니은행 | NOROO | PONGSAN | TSE | FST | SKBANK | SK증권(주) | SEAH | 사대문구 | SK에너지 | SK이노베이션 | SYMPHONY SONG SHINIK HAHM

2026 합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말리의 “부활”
GUSTAV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02. 07 SAT 17:00
예술의전당 르서트홀
이윤정, 김선정,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무소르그스키와 라벨
“전람회의 그림”
MODEST MUSSORGSKY
Night on Bald Mountain
MAURICE RAVEL
Piano Concerto
피아노, 유성호
09. 12 SAT 19:30
LOTTE CONCERT HALL
MODEST MUSSORGSKY,
MAURICE RAVEL
Pictures at an Exhibition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NIKOLAI RIMSKY-KORSAKOV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FRÉDÉRIC CHOPIN
Piano Concerto No. 1 피아노, 송은채
NIKOLAI RIMSKY-KORSAKOV
Scheherazade
03. 12 THU 19:30
LOTTE CONCERT HALL



차이코프스키
스페셜
PYOTR TCHAIKOVSKY
Violin Concerto
바이올린, 양정윤
10. 24 SAT 19:30
LOTTE CONCERT HALL
PYOTR TCHAIKOVSKY
Symphony No. 4
객원지휘, Darrell Ang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DMITRI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SERGEI PROKOFIEV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김규연
05. 30 SAT 19:30
LOTTE CONCERT HALL
DMITRI SHOSTAKOVICH
Symphony No. 5



루트비히 판 베토벤
Egmont Overture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유영욱
11. 16 MON 19:30
LOTTE CONCERT HALL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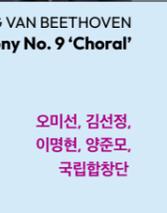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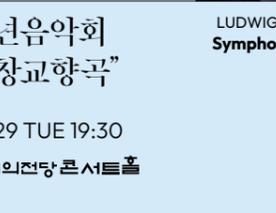
브람스 페스티벌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12. 29 TUE 19:30
예술의전당 르서트홀
오미선, 김선정,
이명현, 양준모,
국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
GIUSEPPE VERDI
Requiem
06. 16 TUE 19:30
예술의전당 르서트홀
오미선, 김선정,
김동원, 사무엘 윤,
부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
“합창교향곡”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12. 29 TUE 19:30
예술의전당 르서트홀
오미선, 김선정,
이명현, 양준모,
국립합창단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2026 시즌패스
2026 Season Pass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특별할인 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구분	석종	회차	원가	할인가
2월 28일까지 구매시	VIP석	7회	840,000원	756,000원
	R석	7회	700,000원	630,000원
	S석	7회	490,000원	440,000원
	A석	7회	350,000원	315,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7회	350,000원	200,000원
	B석	7회	240,000원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 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 송



시즌패스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등급 R석 S석 A석

수령 방식 현장수령(추천) 자택 또는 회사 주소 _____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후원회 수시가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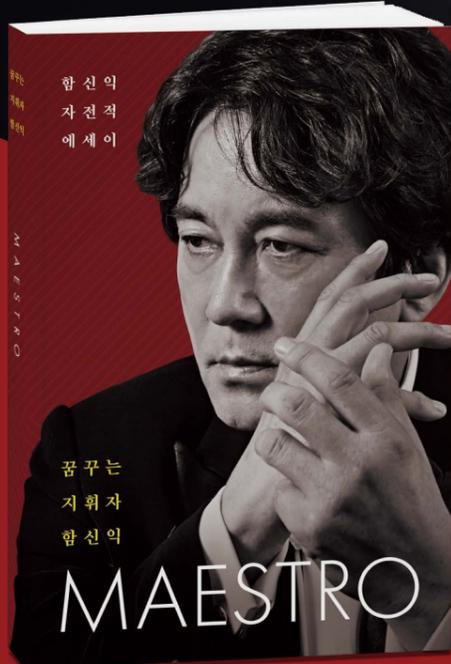
함신의 지휘자 **최신작**



꿈꾸는 지휘자 마에스트로



주문
02-549-0046



구성원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현실을
걱정하는 MZ에게,
어느덧 세월을 보낸
진정한 어른들에게,
지나간 연주 인생에서 얻은
성찰과 지혜를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www.tse21.com

@life.tse

TSE

※본 도서의 판매금은 심포니 송의 운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HANDIUM

PANAMA GEISHA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입니다.



온라인 스토어	www.handium.co.kr
고객센터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주요 판매처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HANDMADE FOR YOUR PREMIUM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www.k2web.co.kr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